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 5702 (교환-2056, 2860) 직통 (0331)280-2056, 2860 FAX(0331) 280-2238

발행인 조영식 / 주간 이석우 / 편집장 오홍섭 / 인쇄인 김준배

제1017호 〈주간〉 1993년 3월 22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수원 제25대 총학생회 출범

오는 24일, 총노선 인준과 투쟁방향 결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오는 24일 오후2시 체대앞 혁명광장에서 제25대 총학생회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재정확보투쟁을 결집하고 이후 교재투에 대한 결의와 팀스피리트 훈련, 남북합의서이행에 관련한 반미투쟁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산업대 학생회장 이혁희(식공·4)군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단대 연합노래패 '백두울림'의 노래배우기 순서와 배태영(외대·영문)부총장의 축사를 식전행사로 마련하고 본행사는 개회사, 애국의례, 총학생회장 김성규(건축공·4)군등 확대운영위 소개및 인사, 권영환 노조위원장과 김창헌(유전공학 석사과정 2기)대학원 부총학생장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축하공연과 깃발이임식 후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생총회에서 93학년도 총노선이 인준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총노선은 통일투쟁과 대정부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노선, 교육재정확보와 교육대개혁실현을 목표로 한 학자노선, 단대·과학생회 강화에 주력하게 될 조직노선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일반학생들의 토론을 거쳐게 된다. 식후행사로는 고사와 집단놀이가 마련된다.

한편, 이날 출범식 선전과 학원구성원화합을 목적으로 23일 오후1시부터 학생회관에서 서천리까지 길놀이가 마련된다.

93학년도 1학기 자치예산 분배

수원, 학생회강화 원칙따라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지난 17일 있었던 각단위 사무부 연석회의에서 93년도 1학기 자치예산분배를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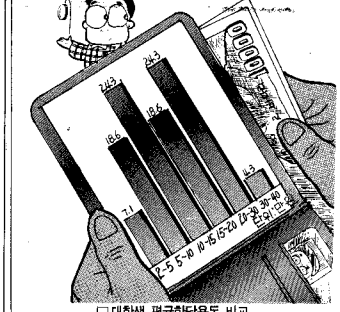
각단위 사무국장들은 이에 앞서가진 지난 10일 연석회의에서 자치회비의 합리적 운영과 부족한 예산부문은 공동노력한다는 사용원칙과 학생회강화를 중심으로한 배분원칙을 합의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1인당 자치회비 7천3백원중, 총학생회는 배분원칙에 따라 작년보다 2배원 상향조정되어 총 자치예산의 61.8%인 4천5백원이 편성되었고 6개단대와 35대65의 비율로 배분한다.

또한 총대의원회, 고학교지원심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총예비역협의회, 응원단, 경희TV등 8개 특별위원회는 자치예산의 38.5%인 2천8백원을 1학기 사업에 사용하며 경희TV는 작년 인준후 올 1학기부터 자치예산의 1.4%인 1백원을 분배받게 된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매월 사업계획제출과 예결산 공개를 각단위 사무부와 합의하였으며 학생처와 협의하에 물가인상등을 고려한 2학기 자치회비 인상안을 검토중이다.

그림뉴스



□대학생 평균한달용돈 비교

등록금 협상, 예산서로 양측 공방

민주적 책정·행정 고유권한 주장맞서

현재 진행중인 양캠퍼스 등록금협상은 학교측의 예산서공개와 그를 분석한 학생측의 요구안이 정리되면서 구체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총학생회(이하 총학)와 학교측은 지난 19일 오후 3시 부총장실에서 제3차 등록금협상을 벌였다.

학교측은 학생측 요구안 중 건설가계정은 등록금이외의 재원에서 충당할 것과 추가경정예산서와 92년 결산서 공개, 경기계인 장학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그외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학교측은 또한, 93년 예산서를 토대로 총학이 잠정결정한 13%의 등록금인상률에 대해서는 "인상률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총학은 지난 17일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열고 △교육재정 확보 △교육여건 및 제도개선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학생측요구안을 확정했다.

【수원】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 학교측과 총학은 체과대 2층 세미나실에서 등록금에 관한 실무자 협상을 가졌다.

지난 17일 학교측이 총학측에 공개한 93년도 예산서 분석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총학은 입학금이 부당히 인상된점과 작년 합의사항중 도서관 공사비 재단부담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학교측은 작년 등록금 합의사항과 재단의 실정을 들어 양측이 입장확인만을 거듭한채 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총학은 1인1요구안과 각대대 요구안에 기초한 5대요구안과 등록금 합의사까지 3차등록기간 유보를 학교측에 요구했다.

한편 총학과 학교측은 오늘 오후 체과대 세미나실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전총련(건) 중앙운영위 회의

전대협 해체후 조직건설, 총노선 논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총회 및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전총련) 건설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본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20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전대협총회에서 1백여명의 대의원들은 87년부터 6년간의 전대협 부쟁을 평가하고 이를 전총련의 전통으로 이어 갈 것을 결의했다.

전총련건준위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1일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용(한양대 학생회장, 정외·4)군을 제1기 전총련의장으로 정식 인준하였다.

이어서 전총련을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조직체계를 밝혀 놓은 전총련 조직강령과 규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중앙운영위원들은 93년 총노선수립과 관련해 '변화하는 시대와 대중의 흐름에 걸맞는 학생운동'으로 방향성을 규정하고 이후 대의원회의, 전총련출범식, 범민족대회 등의 사업을 통해 조직건설에 주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최고의결기구로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까지 참가하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 연합 소속학생 2백여명은 20일 오후 "서총련 투쟁일곱 전진대회"를 열고 대회사수를 다짐하기도 했다.

관리직근무 원상복귀

관리직 근무형태가 오늘부터 원상복귀(1일2교대)된다.

학교측은 지난 2월22일 통보한 관리직 직종분리와 근무형태변경조치를 철회하고 이후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17일 노조측에 알렸다.

한편 노조는 지난 18일 투표를 통해 제5대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26일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영대학원동창회장학금

경영대학원 동창회(회장 손현수 경영자 과정 30회 졸업)는 지난 11일 경영대학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수혜자는 김덕문(세무관리 5기)군 등 모두 4명이며 지급액은 2백만원이다.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동창회는 기금 조성을 해왔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지급된 것이다. 손 동창회장은 "수혜자 수, 액수 면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철회' 한의대 총파업

전국적 확산 조짐 보여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지난 18일 '약사법 개정철회 투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비상총회에서 제기된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 5백89명중 66.6%인 3백92명이 찬성하여 이같이 결의하였다.

한의대생 4백여명은 지난 17일 '약사법개정철회 투쟁목표공유 및 투쟁방도 결의'를 위한 비상총회를 갖고 약사법 개정철회와 법한의학계의 단결을 결의했다.

또한 19일에는 과천 보건사회부건물앞에서 보사부장관의 공개면담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진 후 명동성당에서 대국민홍보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총파업결의에 대해 이후 투쟁방향과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고, 전국 한의과대학들도 총파업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야학교사 모집

수원지역 야학교사협의회는 오는 4월15일까지 대학생을 상대로 교사를 모집한다.

접수장소는 ▲신갈야학(신갈사거리, 전화 (0331)283-5566) ▲샘터야학(아주대입구, (0331)215-0764), ▲성광야학(의왕시 포도원 입구 (0343)54-8966) ▲제일야학(하광교동 벽산아파트위 (0331)43-9048)등이다.

문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각 학교로 연락하면 된다.

문리대뒤 가건물 화재발생

공간문제 해결 움직임으로 확산

지난 14일 새벽 6시 30분경 문리대뒤 가건물에서 전열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내 집기가 모두 불타고 문리대 유리창 등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목격자 서윤석(물리·2)군은 "새벽 3시 '한얼패'동아리방에 들어갔으나 신원 불명 2명이 전기장판과 전열기구를 켠채 자고 있어 '가약사'동아리방에서 자던 중 '한얼패'에서 불이 치솟았다"며 "즉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했으나 작동되지 않아 조기진화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가건물은 지난 89년 법대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로 지어진 것이며 91년 법대준공이후 철거되어야 했으나 학생자치공간으로 변칙사용되어 왔다.

한편, 이번 화재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되어왔던 문리대 공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문리대학생회는 화학과 평가제에 따른 공간확보, 지리과와 생물과의 야간학부 자치공간확보, 그리고 교직이수, 문리대 장기적 발전계획안 마련 등을 문리대요구안으로 정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다.

병설학교장 신규임명

경희고등학교 등 본교 병설학교의 교장, 교감 등이 지난 1일자(字)로 신규 임명되었다.

임명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경희고 교장=여성구씨 ▲경희중 교장=박봉상씨 ▲경희여중 교장=정병열씨 ▲경희국교 교장=만제륜씨 ▲경희여고 교감=박용수씨

윤갑병교수 도서기증

윤갑병교수 등 본교 교수 3명은 지난 3일 중앙도서관에 각각 도서를 기증했다.

지난 2월 퇴직한 윤갑병(문리대·수학)교수는 전공관련 원서 2백33권을, 김수곤(경경대·경영)교수는 '1990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1질 20권, 조인원(정경대·정외)교수가 일본 사학잡지와 학술잡지, 'World Politics'등을 각각 기증했다.

연구처, 연구비 지원 모색

서울 연구처는 19일 '교내학술연구비 지원방법 개선'과 '연구 지원 편람 발간'을 골자로 하는 93학년도 1학기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세부 실천 계획을 살펴보면 '선정위원회'구성하여 연구실적의 적절한 평가방법 모색, 연구비 확대 지급, 대외 연구비 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다.

정복근(문리대·물리학 교수)연구처장은 "순번제에 의한 연구비 균등지급을 지양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차등지급하며 연구비 확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수혜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학점교류 교환학생 선발

국제교류위원회는 자매교 영국 뉴 캐슬대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에 의거,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국교위 소정양식), 전학년 성적증명서, 학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오는 28일까지 국제교류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전형방법은 추후 통보된다.

교환학생은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면 뉴 캐슬대의 성적평가로 학점이 인정된다.

본교는 지난 91년부터 뉴 캐슬대와 매년 3명의 학생을 상호 교류시켜왔으며 금년에는 일본 동경국제대학에도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가정대 신축 요원건설로 낙찰

가정대건물 신축공사에 요원건설이 입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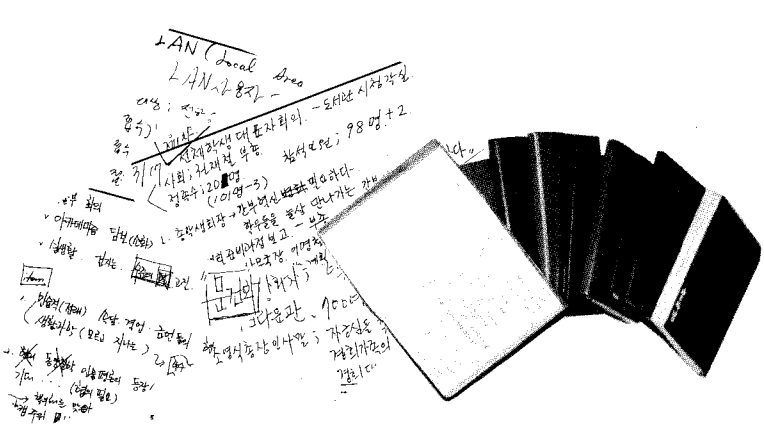
지난달 2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입찰에서 총 13개업체가 경쟁을 벌인 결과 요원건설이 23억7천만원에 입찰을 따냈다.

본교 건설부는 현재 동대문구청에 가정대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허가가 나오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정대 건물은 임간교실과 언어교육연구원(구시청각교육실) 사이에 지하1층, 지상4층 총1천7백평 규모로 지어진다.

대학의 모습을 보다 정확히 그리기 위해, 대학의 여론을 보다 바르게 전하기 위해 '대학주보사'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권의 취재노트"



대학주보 기자생활 3년째,
취재노트만 벌써 12권
김기자의 취재노트에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담겨있습니다.
교수님은 물론, 총학생회장, 국회의원이 되신
등문 선배,
베스트셀러 작가인 동문 소설가,
학교 앞 호프집 주인 아저씨, 하숙집 아줌마,
세미나 취재 때 만났던 외국인 학자…

김기자는
이런 만남에서 배우게 되는 지식과 진실을
많은 대학인들에게
보다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오늘도 13권째 취재노트를 펼쳐듭니다.

대학주보사